



일파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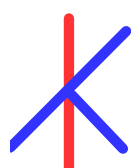
KT새노조 소식지 2015.4.4

www.humankt.org

VOL. 24



해고 쓰나미가 몰려 온다!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KT새노조

독자투고&제안 | newnojo@naver.com

후원계좌 | 국민은행 242401-04-305834

(KT새노동조합)

해고 쓰나미가 몰려 온다!

‘저성과자를 해고시킬 수 있게 하자’는 이른바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포함하는 노사정대타협안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대타협이 타결될 경우 해고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대타협안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대로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논의 자체를 거부했지만 한국노총이 참여한 상태인데, 약간의 진통은 있겠지만 대체로 정부가 밀어부치는 대로 해고요건 완화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노사정대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에게 닥칠 치명타, 일반해고 요건 완화

쟁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KT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다름 아닌 ‘저성과자 해고의 법제화’로 알려진 해고 요건 완화 논의이다. 언론에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현재 논의되는 바는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여 노사협의회를 거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경영계에서는 사실상 “노조 반대로 인해 저성과자 퇴출이 불가능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1노조가 교섭권만 차지하고 있을 뿐, 노동자를 보호하는 아무런 구실도 못하는 KT의 경우 이런 정도 법안만 마련되어도 정규직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해고 쓰나미가 몰려오지 않겠는가!

이미 저성과자 퇴출을 노사합의한 KT 제1노조

KT노조의 2013년 단협 설명서 중 면직조항 설명 내용

6. 면직 항목 신설

□ 주요 내용

- 2년 연속 인사평가등급 F/F 중 업무실적이 직원 평균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대기발령 (대기발령시 교육, 과제 부여 등 생산성 향상 기회 제공)
- 2회 이상 대기발령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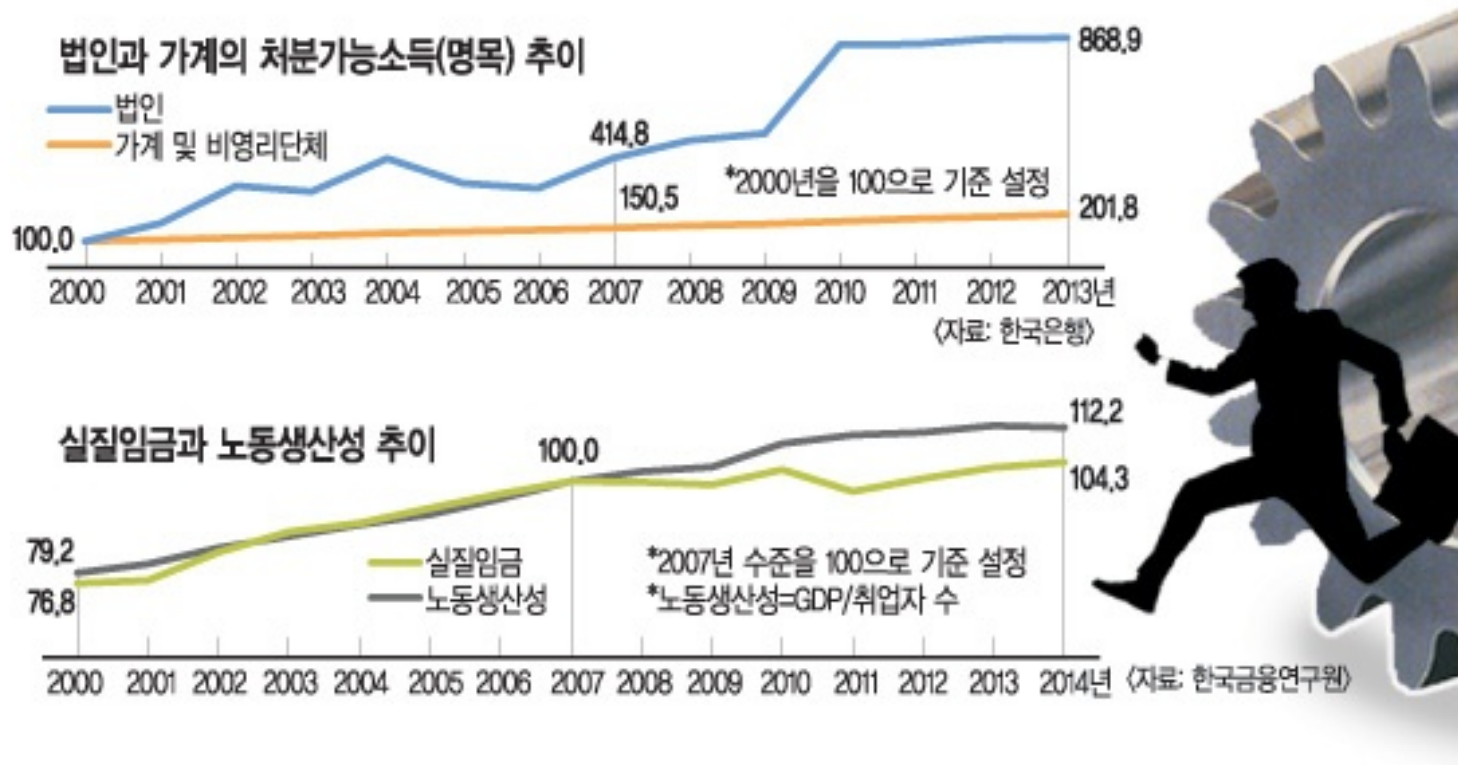
□ 시행일 : 2013년 인사평가부터

KT노조는 2013년 5월 노사합의를 통해 인사고과 최하위를 2년 연속 받으면 대기발령시키고, 2회 이상 대기발령 시 면직시킬 수 있는 조항을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KT에서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실상 노사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KT는 지금껏 각종 불법인력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노동자들을 퇴출시키지 않았던가! 최근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KT의 사례가 심도 있게 토론된 바 있는데, KT새노조를 대표해서 발표한 유용국 씨는 "작년 4월에 이뤄진 대대적인 구조조정 때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현재는 전혀 다른 보직으로 발령을 받아 일하고 있다"며 "한창 진행 중인 노사정 합의가 현안대로 통과되면 구조조정 대상자의 경우 설혹 그 때는 해고를 피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업무가 바뀌게 되고, 이럴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만년 '저성과자'가 되어 결국 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 문제의 핵심 노동생산성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양극화

한편 해고요건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의 핵심 문제는 “노동자들이 성과가 낮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노동과 자본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인데도, 정부가 재벌 편에 서서 노동자를 해고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 통계만 봐도

노동과 자본의 분배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은 12%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실질임금은 4% 인상에 불과했다. 가계의 소득은 2배 늘어난 반면, 기업의 소득은 8배가 늘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하는 법안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KT 노동자 진지한 반성 있어야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 경제정책에 맞서 민주노총은 오는 4월 24일 총파업을 단행한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민주노총 사업장 경우, 현재의 논의대로 저성과자 해고요건이 완화되어도 노사협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해고를 막을 것이기 때문에 저성과자 해고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노동 관계자들도 저성과자 해고가 법제화 될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곳으로 KT를 꼽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KT 노동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를 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파업을 결정한 사실조차 대부분 모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KT 제1노조의 문제는 단지 KT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를 가장한 사실상의 임금삭감도 그렇고,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도 그렇다. 이 점에서 이제는 KT 노동자들의 일대 각성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힘을 실어주자!

 민주노총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멈춰! 박근혜

-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16년은 총선, 2017년은 대선이 있는 해이다. 금년이 지나면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도 최대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응원하자! 민주노총의 총파업 소식에 관심을 갖고, 용기를 내어 휴가를 통해서라도 투쟁에 참여해 보자! 작은 액수라도 성금을 모아 보내자! KT 노동자들도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자. 이러한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모일 때 KT노동자들도 구조조정 걱정 없이 회사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힘이 생기지 않겠는가!

직원 자르기 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황창규 회장의 민낯을 보여준 2015 KT 정기 주총



황창규 회장이 취임하고 올해 처음 정기 주총을 맞이했다. 지난 한 해 KT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4월 8,304명을 명퇴란 이름으로 강제퇴출했다. 한국 구조조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숫자이다. 전임 이석채 회장의 경영 실패인지, 고의적 배임인지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경영 결과들이 속출했다. 알짜배기 전화국 부지를 팔아서 인수합병한 56개 자회사 중 절반 이상이 적자임이 확인되었다. 1조 원이 들었다는 차세대 전산, BIT는 제 구실도 못 한 채 굴러가고 있다. 심지어 국가전략 물자로 수천 억 원을 투자한 인공위성을 단돈 5억 아파트 한 채 값으로 팔아 치운 일에 대해서, 윤리경영실이 관련 책임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석채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경영지원실장은 아직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난장판이 된 주주총회장

2015년 정기 주총은 2014년 경영을 총결산하고 자기비판과 성과를 논하는 자리다. 그러나, 매출 20조 그룹 KT정기 주총은 아파트 주민총회보다 못한 수준으로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50분 만에 일사천리로 끝났다. 애당초 황창규 회장은 KT 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을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다. 당연히 난장판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KT새노조는 주총 전 연구개발본부 앞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주주들과 국민들에게 KT를 살리자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뒷걸음 치는 KT, 현장을 모르는 CEO! 이제 주주들이 나서야 합니다!

창사 이래 첫 무배당 주총!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것은 무배당이 아니라 회사가 총체적으로 뒷걸음친다는 사실입니다. 매출, 순익, 자산 모든 게 줄고 있는데도 경영진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그저 반복적으로 구조조정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헤쳐 나가기 위해 일선 현장의 직원들의 사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다가 구조조정 중독증에 걸린 CEO를 믿고 혼신의 노력을 하는 직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KT의 문제는 당장의 무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전망의 부재라는 게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비극의 씨앗, 이석채가 망쳐 놓은 현장을 그대로 끌고 가는 황창규 회장!

KT가 결정적으로 기울어진 것은 MB 낙하산, 이석채 전임 회장 때 혁신이랍시고, “탈통신”한다면서 영업 현장을 무너뜨린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시절 부동산 매각, 동케이بل 매각 등 자산을 팔아 실적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마치 경영혁신인 것처럼 칭송되었습니다. 이러한 본사의 분위기는 그대로 영업현장으로 전이되었습니다. 가혹한 구조조정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영업현장은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갖 편법과 허수를 동원하여 실적 채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팔리지도 않은 휴대폰을 개통 처리해서 허수로 실적만 채우는 관리자가 오히려 일 잘하는 관리자로 둔갑하는 게 KT 영업현장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KT인터넷 잘 쓰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해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라”면서 잔뜩 지원금 갖다 주는 게 고객 유치에 성공한 실적 좋은 직원으로 칭찬 받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현장 아무 것도 모르는 황의 법칙은 말짱 황!

이 위기상황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황창규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장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 채, 이석채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영업 현장은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는 관리자들의 판입니다. 구조조정 때 온갖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을 많이 쫓아낸 자들이 더 승승장구합니다. 이러한 일선의 관리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KT 아무런 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KT 혁신의 출발은 바로 이러한 허수경영, 반인권적 노무관리에 익숙한 현장 관리 라인을 정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황창규 회장은 오히려 이들에게 의존해서 회사를 끌고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KT업무지원단과 같이 일할 의지도, 능력도 있는 노동자들을 단지 명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판 황의 법칙은 말짱 황이라는 게 직원들의 여론입니다. “혁신 전도사 이석채는 부동산을 팔아 실적 채우더니 황의 법칙 황창규는 계열사 팔아 실적 채운다”는 게 직원들의 한숨 어린 비아냥인 것입니다.

KT 비자금 조성, 인공위성 헐값매각 등 전면적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지금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온갖 부실기업 인수, 비자금 조성 등 나오는 얘기가 하나같이 KT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T에서 이런 나쁜 짓을 한 경영진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석채 전임 회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천 억 원을 들여 쏘아 올린 인공위성을 달랑 5억 여 원에 헐값 매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석채 전 회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비자금 조성의 책임자로 알려진 신 모 경영지원실장은 여전히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니 회사 사정이 나아질리 있겠습니까!

KT 기업 이미지 혁신 없이 한 발도 못 나갑니다!

KT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는 대량명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에서 영업하는 우리 자신들이 직접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이미지 개선 없이 KT 한 발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KT에서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회사를 완전히 말아먹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KT에 필요한 혁신은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KT를 망친 자가 KT를 떠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회장이 바뀌고 이사회 멤버들이 바뀌어도 영업일선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한 KT의 미래는 없다는 게 사내주주들의 확신입니다.

주주들이 나섭시다!

이에 우리 KT사내 주주 일동은 주주님들에게 호소합니다. KT 비자금 조성, 인공위성 헐값매각 등의 강도 높은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들을 명명백백 밝혀내 회사를 망친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아울러 황창규 회장에게 이러한 고강도 혁신과 비윤리적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우리 주주들의 노력이야말로 초라한 경영실적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 KT 사내 주주 일동은 확신합니다.

황창규회장이 주총에서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난 구조조정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계속 구조조정하겠다!'

황창규 회장은 이석채 전 회장과 정확히 오버랩 된다. 이석채의 2009년 6,000명 명퇴(한국기록)과 황창규의 2014년 8,300명 명퇴(한국기록)이 오버랩 된다. 이석채 회장의 경영전략(컨버전스와 가상재화)가 황회장의 경영전략(기가와 사물인터넷)과 너무나 닮아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이석채는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았고 황창규 회장은 알짜배기 계열사를 판다는 것 뿐이다.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새노조는 KT를 살리는 명확한 처방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황창규회장은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KT에 대한 근원적인 진단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구조조정이다. KT직원들은 CEO의 기가인터넷에는 무반응이지만, CM분사, CS분사란 말을 들으면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한다. 직원들의 이러한 반응은 황창규회장이 만든 것이지 직원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주총에서 황창규 회장이 던진 메시지에 이제 KT 노동자들이 답을 할 차례다

황창규 회장의 메시지에 KT노동자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황회장은 KT노동자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수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본인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이다. 지금 KT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결단이다. 황창규회장과 제1노조의 협력프로그램을 거부한다는 선언이 필요하며 그것은 **제1노조 탈퇴/ 교섭대표권박탈/ 새노조로의 결집**이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동시에 환희의 과정이다. 알 속의 좁은 어둠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찬란한 신세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알을 깨는 과정이다.



줄탁동시

- KT새노조가 신세계에서 KT노동자들의 단 한번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단계 정리해고에 불과한
“수평이동”이라는 이름의 분사화

응답하라 2008

지난 2008년은 여러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 8월에는 IT업무가, 10월에는 VOC업무와 프라자업무가 아웃소싱되었다. 결국 이로 인해 1,200여명의 직원이 KT로부터 자회사로 전적 전출되었다. 물론 가기 싫다고 버틴 극소수의 이들은 남았지만 대부분은 아웃소싱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복지, 임금 등은 다소 나빠질 수 있지만 하던 일 계속 할 수 있다’는 그 달콤한 거짓말의 유혹과 강압에 흔들려서 말이다.

노사합의로 시작된 IT 업무 분사

IT본부 분사의 시작은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였다. 6월 초에 분사 합의 발표가 있었고, 8월 1일 신설 법인이 출범하자 곧 바로 사흘 후인 8월 4일부터 관리자들이 나서서 전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전산직이라는 동일직종과 비슷한 연령대라는 동질감이 큰 힘이 되면서 잔류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막상 회사의 집요한 면담과 전적강요에 분위기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잔류를 선택할 경우 원거리 발령과 적응하기 힘든 업무전환을 할 것”이라며 회사는 강하게 협박하였고, 실제로도 전적동의서를 거부한 100여명을 원거리로 발령 내기도 하였다. 실제로 강화도로 발령받은 3급 직원은 발령문서를 받자마자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서울이 자택인 여직원이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기도 안성으로 발령받기도 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당시 분사 후 자리약속을 보장받은 노조 간부들이 앞장서서 전적동의서를 가지고 다니며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그러나 끝까지 동의서 안 쓰고 버틴 직원들은 모두 현장 개통업무나 영업부서로 발령받았으나 지금까지 KT에 남아 꿋꿋하게 버티며 일하고 있다.

한편 VOC 업무 외주화의 경우도 비슷했다. 이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 550여 명은 여러 출자회사 등을 전전하던 끝에 KTCS, KTIS 두 자회사로 넘어갔다. 여기에는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KT에서 받던 급여의 70% 임금과 3년 간의 임기보장이 조건이었다. 이들을 설득하는 카드 역시 업무였다. “VOC 업무를 더 이상 KT에서 하지 않게 됐으니 자회사로 넘어가라! 3년 보장이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 계속 고용할 것”이라는 약속도 있었다. 그러나 3년 만에 KT는 다시 VOC 업무를 회수해 왔다. 하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줄테니 자회사로 가라던 회사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자회사로의 수평이동은 2단계 정리해고일 뿐

IT본부 분사 이후 생긴 자회사가 KTDS이다. 이 회사로 분사할 당시 회사가 얘기한 것은 수평이동이었다. 근로조건 후퇴 없이 그냥 회사 이름만 바뀐다는 것이었다. 배운 것이 전산업무라 자신의 업무를 계속하고 싶어서 KTDS로 소위 수평이동한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일부 총무, 인사파트에 소수만 남아 있을 뿐 전산업무 현장에 있던 직원들 모두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업무가 전문적인 분야이고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업종이어서 고도의 개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회사는 KT에서 전입한 직원들의 능력을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그들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한다. 그 결과 KT에서 넘어간 대부분의 직원들은 도태되었다고 한다. 이 얼마나 냉엄한 약육강식의 현실인가 말이다.

남는 게 답이다! 남기 위해 KT새노조로 오라!

최근 분사설이 난무하고 있다. CS, CM 업무 분사설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물론 회사와 제1노조는 분사는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추가 분사는 없다는 노사합의서 한 장 만들면 모든 의심이 사라질 텐데 말로만 “분사 없다”고 얘기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의 KT 노동자들이 제1노조와 회사가 또다시 밀실협상을 통해 전격적으로 분사를 발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KT 노동자들의 위축 정도로 볼 때, 많은 이들이 자포자기하고 분사 된 회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자회사로의 수평이동은 사실상의 2단계 정리해고일 뿐이라는 점이다. 앞서 IT업무와 VOC 업무 분사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남는 게 정답이다. 그리고 남기 위해서는 KT새노조로 와야 한다. KT새노조는 소속 조합원에 가해지는 수평이동 강요 등에 내몰리지 않게 확실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한 번의 용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일념으로 KT새노조로 오라!



▶ **KT직원이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KT새노조 규약 제5조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KT에 근무하는 직원과 통신 관련 산업 및 이에 관계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율의 준수를 서약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 조합원이 된다.

▶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 ① KT새노조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아래 첨부파일 다운
KT새노조에 보낸다~

 메일 : newnojo@naver.com

※ 보내주신 신청서를 KT새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 ② 조합비를 납부한다~
납부계좌 : [국민은행 242401-04-305834 \(KT새노동조합\)](#)

가입 형태	조합비	기타
KT새노조 조합원	4만원/월	기존 KT노조(제1노조)는 탈퇴 처리됩니다.